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

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4월 1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기술시장과 윤성혁 과장 (02-2110-5381), 강규형 사무관 (02-2110-5194)

산업부, 데쓰밸리 기간 'R&D 중소기업'을 위한 '초기 사업화 (Death-Valley Bridge) 펀드' 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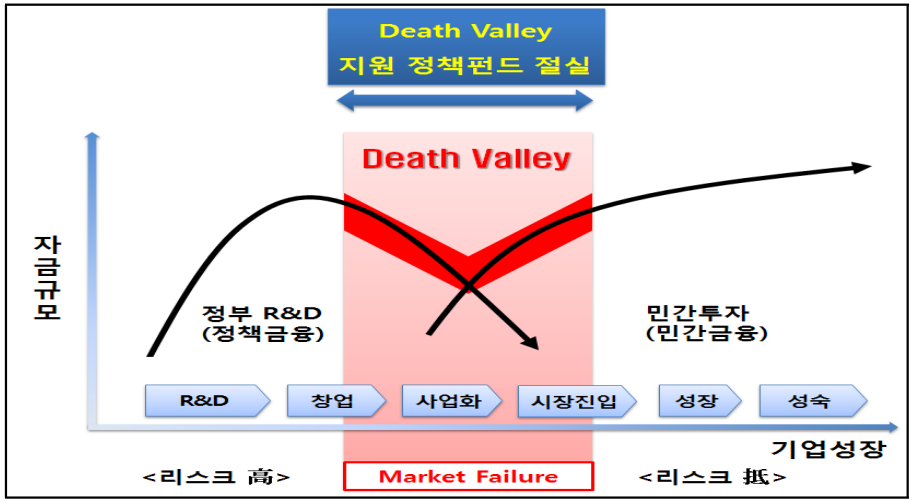
□ 산업통상자원부 (장관 윤상직)는 **데쓰밸리*** **기간**에 **어려움**을 **겪고** 있는 **'R&D 중소기업'**의 **초기 사업화**를 **지원**하는 **전용펀드** (Death-Valley Bridge Fund)를 **출시**함

* 데쓰밸리 (Death-Valley) : 초기 벤처기업들이 R&D에 성공해도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고난의 시기라 하여 붙여진 이름

○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4.17일(수) **간담회***를 **개최**하고 **전용펀드 운용社**를 **공모** [한국산업기술진흥원 (KAIT) 홈페이지] 한다고 밝힘

* **장소** - (주)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, **시간** - '13.4.17일(수) 15:00~16:30 **참석자** - R&D 중소기업 (9개社) 및 사업화 전문회사 (4개社) 등 **총 15명**

< 데쓰밸리 도식도 >



□ **'초기 사업화 펀드'**는 **'기술사업화 R&D 중소기업'**의 **데쓰밸리 기간 극복**을 통한 **성과창출 및 기업가치 제고**를 **최우선 과제**로 **설정**하고 **정책목적 달성**을 위해 **▲ 투자전략, ▲ 운용社 인센티브, ▲ 정부지분율, ▲ 지원기능, ▲ 지원규모, ▲ 조성규모** 등에서 **他 정책펀드**와 **차별화**를 **시도**함

< 정책펀드 비교 >

구 분	모태	新성장동력	정책금융공사	초기사업화
목 적	중소·벤처기업 육성·지원	新성장동력 분야 기술 사업화	新성장동력산업의 중견기업 육성	데쓰밸리 기간의 R&D 중소기업 지원
대 상	중소·벤처기업	중소·중견기업	제한 없음	R&D 중소기업
수익률 (IRR)	5~7% ↑	5% ↑	8% ↑	정부지분 0%
공공출자	30~70%	20% ↓	70% ↓	50% ↑
투자규모	약 14.6억원	약 112.4억원	약 363억원	20억원 ↓
지원기능	별도 없음	기술지원, 컨설팅, 정보제공 등 지원	별도 없음	사업화 全주기 밀착 지원

○ 첫째, **투자전략**은 '13년도에는 **투자 시점을 기준으로 2년 前 산업기술 R&D에 성공한 기업**으로 **원칙**을 **고수**하되, **향후 시장 수요**를 고려하여 **'민간 R&D 기술 사업화 중소기업'**으로도 **확대 예정**임

○ 둘째, 운용社의 **도전적인 투자유도**를 위해 **정부 출자지분에 한해 기준 수익률을 0%**로 **적용**하고 **정부출자지분**에 대해서는 **우선손실 충당의무制를 배제**하는 등의 **인센티브**를 **부여할 예정**임

○ 셋째, 기술력을 가진 **'R&D 중소기업'**의 **투자 확대**를 유도하기 위해 **정부의사결정 지분율**을 **50%이상**으로 **상향 조성**할 예정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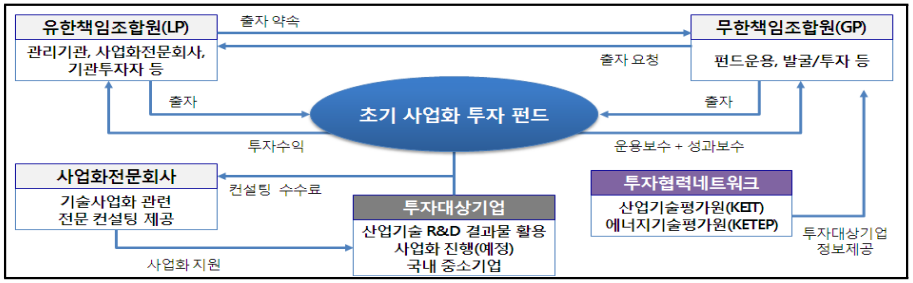
○ 넷째, 운용社가 **사업화 주기별**로 **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산업부**에서 **지정·운용 중인 사업화전문회사***와 협업을 유도하여 기술평가, 사업화컨설팅 등의 **사업화 全주기를 지원**할 예정임

* '12.3월이후 L&S 벤처 캐피탈 등 7개를 지정·운용 중이며, 투자기업 사업화 전략 설계, 추가 기술응용 지원,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지원

○ 다섯째, **업체당 투자규모**는 **중소기업 설비투자 규모** 등을 **고려**하고 **제한된 재원**으로 **다수 기업**을 **지원**하기 위해 **20억원 이내**로 **한정**할 예정임

○ 마지막으로 **펀드조성 규모**는 '13년 **'제1호 펀드'**는 **250억원 규모**로 **조성** (정부투자 기술료 200억원), **'14년**에는 **기술료 99억원**을 **출연**하고 **'15년부터는 일반회계 편성**을 **검토**하여 확대할 예정임

< 초기 사업화 펀드 운용 구조도 >



□ 同 행사에서 **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실장**은 간담회시 **'R&D 중소기업'**들은 **창조경제의 핵심**이라고 하면서 **중요성을 강조**함

○ 이와 더불어 **'R&D 중소기업들'의 자금조달**에 **애로점이 많은 점** 등을 **고려**하여 정부도 **다양한 지원방안을 고안 중**에 있지만 **정부 차원**의 **노력**만으로는 **역부족인 현실을 설명**함

- 이에 **'R&D 중소기업'**들도 **어려운 상황**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**앞으로도 열심히 기술개발** 등을 통해 **고부가가치 창출을 당부**함

□ **정만기 실장**은 **'R&D 중소기업들'**의 **애로사항 청취**를 위해서라도 **오늘과 같은 회의**를 **향후 활성화**할 **필요성을 언급함**

○ 이와 더불어 **오늘 논의된 내용**에 대해서는 **기술사업화 정책 추진** 시 **지속적으로 검토**하여 **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**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강규형 사무관 (☎ 02-2110-519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행사 개요

◈ R&D 개발완료 후 **'초기 사업화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'** 현장을 점검하고 **기술사업화 과정**에서 관련 업계 **애로사항 청취**

- 이와 더불어 금년부터 **데쓰밸리*** **기간**에 있는 **R&D 중소기업**에게 **지원**예정인 **전용 펀드**에 대한 **정책 설명도 추진**

* 데쓰밸리 (Death-Valley) : 초기 벤처기업들이 R&D에 성공해도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고난의 시기라 하여 붙여진 이름

□ 방문 개요

○ **일 시** : 2013. 4. 17(수) 15:00 ~ 16:30

○ **장 소** : (주)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* (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3층)

* **전자세금계산서**를 **운영 중**에 있으며, PaaS (Platform as a Service) 기반의 **'비즈니스 포털시스템'**을 사업화 할 예정임, **'12년 매출액 : 90.58억원**

○ **참석자** : R&D 중소기업, 사업화 전문회사* 등 15여명

* '12.3월 지정이후 7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, 중소기업들에게 정보수집분석, 기술발굴·개발, 사업화 등의 컨설팅을 지원 중에 있음

구 분	참 석 자
R&D 중소기업 (9개社)	**(주)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(방문기업)** (주)베이다스, (주)네오랩컨버전스, (주)나노씨엠에스, (주)태광테크 (주)미래와도전, 퓨얼셀파워(주), 제넥신(주), 대덕위즈(주)
사업화 전문회사 (4개社)	L&S벤처캐피탈(주), (주)이디리서치, (주)피앤아이비, (주)테크란

* R&D 중소기업은 수도권 기업 중 '12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최근 정부 R&D 과제를 성공했으며, 초기사업화 진행 또는 예정인 기업
산업별 배분 : IT (2개), 전기전자 (2개), 소재 (2개), 에너지 (2개), 생명 (1개)

□ 세부 일정

시 간		내 용	비 고
15:00~15:10	10분	현장방문 후 회의실 입장	실장, 업체 관계자
15:10~15:13	3분	인사 말씀	실장
15:13~15:18	5분	초기 사업화 펀드 소개	국장
15:18~15:33	15분	(주)비즈니스 사업화 기술 소개	업체 관계자
15:33~16:30	57분	간담회 및 마무리 말씀 (2분)	회의 주재 (차관)

* 전체 회의 사회자 : KIAT 기술사업화 단장 (조영희 단장)

참고 2 초기 사업화 (DVB) 펀드 소개

[추진 배경]

□ 국내 **'중소기업들의 R&D 결과물을 초기 사업화'**하는 기간에 **민간 투자유도 및 기술** 위주의 **새로운 트랜드 형성**이 필요

○ 이에 기술성이 검증된 정부지원 R&D의 **데쓰밸리 기간을 집중 지원**하는 **전용 펀드 [일명 : DVB (Death-Valley Bridge)] 조성**

[주요 문제점]

□ **추진 동력 확보에 한계**

○ 최근 정부의 **R&D투자의 지속적인 확대**에도 불구하고 **후속사업화 지원 부족**으로 **R&D결과물***의 **경제성과 창출에 어려움**이 발생

* 韓 : 40.1% (KEIT, '13.1월), 美 : 69.3, 英 : 70, 日 : 54.1 (대구경북硏, '12.8월)

○ 新성장동력 투자펀드 등 **旣결성된 정책펀드**는 운용규모 및 설립 목적상 초기 **사업화 집중 투자 및 사업화 밀착지원에는 한계**

□ **민간 자본 투자 기피**

○ 현행 **기술보증制** 및 **금융기관 여신制**는 기업 재무구조 및 담보력 위주로 운용됨에 따라 **기술력 기반 중소기업 지원***에는 **한계**

* **기술 집약적·추구적·중심적인 속성**을 갖는 기업으로 **기술혁신**이나 **기술적 우월성**이 **성공 요인**인 **중소기업** (출처 :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)

○ 국내 벤처 캐피탈의 **안정적 투자 성향 심화**로 상대적으로 **高위험군**인 **초기 사업화 단계의 투자는 부족한 상태**

* 결성금액 : ('07년) 9,641억원 → ('12) 22,871, 창투사 수 : ('07) 101개 → ('12) 105

□ **사업화 지원체계 부족**

○ 정부의 **개발기술** 위주의 **지원**으로 기술사업화가 **상대적으로 부족***

* 정부 R&D중 사업화 예산 비중(%) : ('09년) 0.91 → ('10) 0.92 → ('11) 1.07 → ('12) 1.23

○ **'사업화 전문회사'***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나 실제 활용은 미흡함

* '12.3월 산업부의 심사를 통해 L&S 벤처 캐피탈 등 7개를 지정·운용 중

[운용 계획]

◈ 초기 기술사업화 중소기업의 **Death-Valley 극복**을 통한 **성과창출 및 기업가치 제고**를 **최우선 과제로 설정**

- 펀드결성 완료 후 운용 시 **정부 지분기준수익률 하향 및 운용社**에게 높은 관리보수 등의 **인센티브 제공***

* 정부출자 지분에 대해서는 기준 수익률을 0%적용하고 수익의 20%지급

□ (조성규모) '13년에는 **기술료 200억원, '14년에도 기술료 99억원**을 **출연**하여 **지원**하고 **'15년부터 일반회계 편성 검토**

* 투자기간은 3년 이내, 존속기간은 8년으로 함 (필요시 2년 이내 연장 가능)

○ '13년도에는 선정된 **운용사 및 민간 투자자**로부터 **자금**을 **조달**하여 **250억원 규모**로 **투자재원 조성**

□ (투자전략) 최초 결성 펀드는 정보비대칭에 따른 투자실패위험 최소화를 위해 **산업기술 R&D (성공)완료 과제 투자 원칙 제시**

○ '13년도에는 **투자 시점을 기준**으로 **2년 前에 R&D에 성공한 기업**으로 **구체적인 사업화 계획**을 제시할 수 있는 **국내 중소기업**

□ (지원규모) **업체당 최대 20억원까지 투자** (모태펀드는 평균 15.7억원 투자)

○ 대·중견기업보다는 **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규모** 등을 **고려**하고 **제한된 재원**으로 **다수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억원으로 한정**

□ (손실충당) 초기 사업화 투자 유도를 위해서 정부가 위험을 분담

○ GP의 정부출자지분에 대한 **우선손실충당의무**를 **배제**하고 기타 민간출자자에 대해서는 GP와 LP간에 협의로 정함

□ (운영체계) **산업부 주관**으로 **관리기관**을 지정하고 **주요한 결정사안**은 **운용委, 평가委**를 구성·운영하여 처리

○ 한국산업기술진흥원 (KIAT)을 관리기관으로 하되, **운용사 선정**이후 **한국벤처투자로 이관하여 관리함**

○ 이와 더불어 **사업화전문회사***를 활용한 기술평가 및 사업화컨설팅 등을 **사업화 全주기**에 걸쳐서 **포괄적으로 지원**

* 투자기업 **사업화 지원**을 **목적**으로 관리보수외에 매년 펀드 결성총액의 1%까지 **'사업화전문회사' 컨설팅 비용***으로 **추가 지원**

참고 3 초기사업화 펀드 '13년도 세부 추진 일정

사업 추진절차 (단계)	주 관 기 관	일정
1. 사업계획(안) 확정	○ 산업통상자원부·관리기관	'13.4월 中
⇩		
2. 전담기관 사업 평가 및 승인	○ 전담기관(KEIT) 평가위원회	'13.4월 中
⇩		
3.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업무협약 체결	○ 전담기관·관리기관	'13.4월 中
⇩		
4. 펀드운용사 모집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	○ 관리기관	'13.4.17일
⇩		
5. 펀드운용사 선정	○ 펀드 평가위원회	'13.5월 中
⇩		
6. 펀드 운용사 업무협약 체결	○ 관리기관·운용사	'13.6월 初
⇩		
7. 출자자 모집, 규약 제정 및 펀드 결성총회 개최	○ 관리기관·운용사·출자사원	'13.7월 末
⇩		
8. 투자대상 심사 및 투자집행	○ 운용사	결성 이후
⇩		
9. 출자금 지급	○ 관리기관	수시
⇩		
10. 투자실적 보고	○ 운용사 → 관리기관	정기·부정기
	– 월별 투자실적보고	
⇩	– 결산 투자실적보고 (결산 종료후 90일 이내, 연 1회)	
11. 투자배당수익 지급	○ 운용사 → 관리기관	수시

참고 4 해외 동향

◈ 자생력이 부족한 **자국 중소기업 육성**을 위하여 **전략적인 지원 체계 마련**하여 **지원 중**에 있으며, **민간투자를 유도**함

①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강력한 **인센티브제도**를 **도입**하고 정부 R&D와 후속 **기술사업화 지원제도를 연계**함

② **'Control Tower' 기관**이 있으며, 자금지원外 **투자기업 현황 및 관련시장 분석** 등을 통해 기업에게 **경영 컨설팅 제공**

□ (이스라엘) '93년* 산업통상노동부 주도로 1억달러로 시작된 **'요즈마 펀드'**를 중심으로 오늘날 **벤처캐피탈 시장의 중추 역할을 담당**

* 상황 : 신생 벤처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노하우, 마케팅, 해외 네트워크 등의 부재로 **자금 조달에 어려움**

○ '99년 10억달러, '00년 31억달러가 조성되었으며, 오늘날 **'요즈마자 펀드'**들은 이스라엘 벤처 시장에서 **중요한 역할***을 담당

* '93년이후 4년동안 100여개 벤처기업 투자로 20여개 이상이 IPO단계에 이르렀으며, 1억7천만 달러 이상의 M&A 실적을 달성

○ 정부의 종합경영 컨설팅 제공*, 풍부한 네트워크 제공**, 위험분담 등과 운용사 및 투자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이 성공 요인

* 경영노하우, 마케팅 전략, 파트너 발굴 등, ** 산학연 전문인력, 컨설턴트 등

□ (미국) **엔젤투자***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 및 경영 지원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에 있음

* 창업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주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**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개인투자**를 지칭

○ '11년 기준 벤처 케피탈 시장의 약 43.6%가 **엔젤투자*** 형태임

* GDP 대비 0.15%로 '11년 한해동한 225억달러 (약 24조원)의 규모 반면, 국내는 '11년 기준 296억원 규모로 GDP 대비 약 0.0023% 수준임

□ (영국) '00년부터 **정부 주도**로 **'High Technology Fund 조성'***을 통해 창업 및 **초기 단계**의 **첨단기술기업 자금**을 지원

* 정부가 공동 출자하여 벤처캐피탈이 벤처시장에 투자 활성화를 유인함

○ 이와 더불어 同 펀드는 **첨단제조기술 전문지식 조달 지원** 및 관련 **자문역할 수행** 등 **종합적인 컨설팅 제공**

□ (핀란드) 정부가 단독 출자하여 **공공기관** (Finland Industry Investment)을 설립 후 **벤처캐피탈·사모펀드·기술혁신기업**에 **필요자본 공급***

* 약 41.6억유로가 벤처캐피탈을 비롯한 유망기업 등에 투자됨 ('07 기준)

○ 기업에 직접 투자*하여 **기업발전 및 신규산업 창출**이 가능토록 후속투자를 유도하고 **혁신기술 사업화 촉진**

* 투자기업의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민간투자가 부족한 기술혁신 기업에 대하여 50% 이상의 지분취득 방식으로 투자 중

○ 신규 벤처캐피탈사와 사모펀드 등에 대한 투자도 병행하여 **벤처캐피탈 투자시장 기능 활성화**의 **촉매 역할 추진**

□ (일본) 민-관 합동 펀드인 **'산업혁신기구'***을 통해 **대학 보유 특허의 사업화** 및 **기술기반 벤처기업**에 **자금지원**

* '08년 금융위기이후 기술 사업화에 대한 투자 위축 심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'09년하반기 민·관합동으로 설립된 기구

○ **조성된 자금***을 통해 **벤처기업 자금공급** 및 대학 등의 **첨단기술 실용화 촉진**을 통해 **新사업 창출 및 경제 성장**의 기회 마련

* '09년부터 정부가 820억엔, 파나소닉과 히타치 등 16개사가 85억엔을 공동 출자하였으며, 이와 더불어 정부 보증에 근거하여 기금 마련 가능

○ 이와 더불어 자국 **첨단기초기술 집결·활용** 및 기술 중심의 **사업재편·통합** 등의 **컨트롤타워** 역할 수행